

내신 기출

문학 비상 (상편)

총만국어

www.chongmanguk.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비상>>

◆차례◆

1. 문학의 본질

모란이 피기까지는-----	1쪽 (66문제)
수오재기-----	22쪽 (40문제)
산속에서-----	39쪽 (23문제)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가는 길-----	48쪽 (38문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60쪽 (51문제)
눈물-----	95쪽 (18문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01쪽 (33문제)
참새-----	125쪽 (9문제)
꽃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133쪽 (31문제)
파수꾼-----	146쪽 (25문제)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164쪽 (12문제)
메밀꽃 필 무렵-----	170쪽 (18문제)

3. 한국 문학의 성격

정읍사-----	183쪽 (25문제)
봉산 탈춤-----	191쪽 (18문제)
춘향전-----	203쪽 (2문제)

4. 한국 문학의 역사

주몽 신화-----	207쪽 (15문제)
제망매가-----	215쪽 (23문제)
동동-----	225쪽 (19문제)
이생규장전-----	234쪽 (13문제)
시조 네 편-----	244쪽 (13문제)
속미인곡-----	255쪽 (2문제)
태평천하-----	255쪽 (4문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259쪽 (3문제)

5. 문학에 관한 태도

흐르는 북-----	261쪽 (7문제)
------------	------------

▶정답-----268쪽

▶해설-----272쪽

(버전: 2020.03)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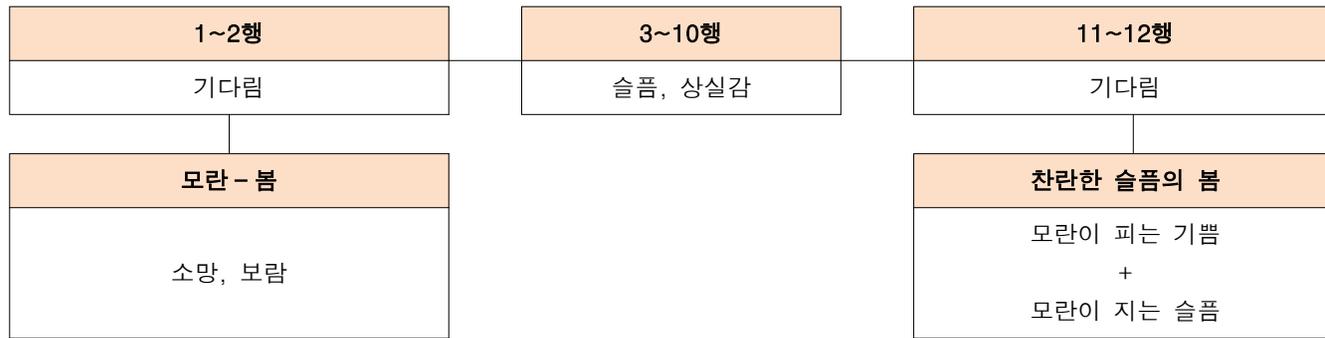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제재	'모란'의 개화와 낙화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아름다움에의 도취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 줌.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함. 		

◆구성

1~2행	3~10행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를 느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1. 작품의 시상 전개



2. 시어의 상징적 의미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등)
'봄'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
'보람'	'모란'이 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삼백예순 날'	슬픔의 깊이, 정감의 깊이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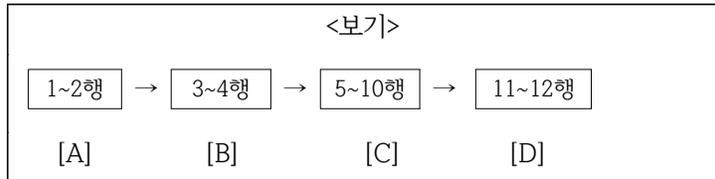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 <보기>에 따라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D]의 '아직'을 통해 화자의 기다림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B]의 '떨어져 버린 날'이 가정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C]의 '오월 어느 날'은 그것이 실현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B]의 '비로소'와 [C]의 '하냥'을 고려할 때, [B]의 '봄을 여윈'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C]에서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피고 짐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⑤ [C]의 '뻗쳐 오르던'과 '무너졌느니'는 각각 [D]의 '찬란한'과 '슬픔'과 대응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다림이 오래되고 숙명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모란을 잃은 절망감이 큼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화자의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 주고 있다.
- ⑤ ㉤ : 체념적 마음 상태를 반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3.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수미 상관의 형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ㄴ.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ㄹ.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ㅁ.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여 부재하는 임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4. ㉦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 ① 내 그대들 생각함은 /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 사소한 일일 것이나 /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움 편지'
- ②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
- ④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김수영, '풀'
- ⑤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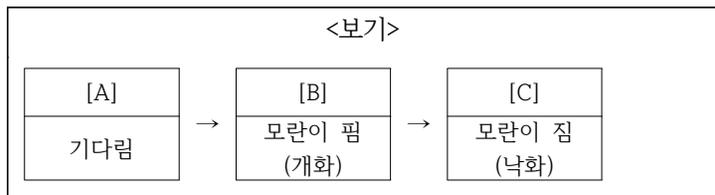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은 화자가 [A]의 상황에서 [B]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봄'은 [B]만을 봄이라고 여기며 '모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통해 [C]로 인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찬란한 슬픔의 봄'은 [B]가 환기하는 봄의 찬란함 속에 [C]가 환기하는 봄의 상실감이 공존한다는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 ~ [C]가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통해 [C]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르테요', '비네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여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뚝뚝', '비로소'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여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7. ㉠ ~ ㉤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 :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잠길 테요'를 수식하는 '비로소'는 화자의 자기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모란의 소멸로 화자가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다.
- ④ ㉣ :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를 통해 화자가 모란을 삶의 보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아직'이라는 시어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막막함과 지루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8. 윗글에서 느껴지는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통적 운율인 4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② '-르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③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였다.
- ④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ㄴ, ㄹ, ㅁ, ㅇ'의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9. 윗글에서 화자는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찬란한 슬픔의 봄'에 나타난 표현법을 쓰시오.
- (2)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조건>

1. '봄은'을 주어로 시작할 것.
2. 6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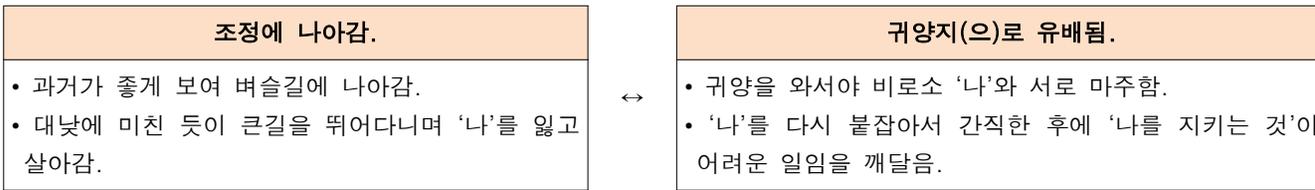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교훈적, 성찰적, 회고적
제재	'수오재'(이)라는 당호		
주제	참된 '나'(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記)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경험과 사색, 자문자답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성찰의 과정을 보여 줌. •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전체 구성

기	승	전	결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나'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음.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함.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힘.

1.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



2. '나'의 두 가지 의미

현상적 자아	상황, 환경, 현실적 조건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자아
본질적 자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아

3. 작가의 자아 성찰 과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吾)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웅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吾)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 에 나(吾)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 때에는 나(吾)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려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吾)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吾)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吾)

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 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太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②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사례를 들어 나타내고 있다.
- ③ ‘천하 만물’과 ‘내(吾)’의 속성을 대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문답식 구조의 열거를 통해 ‘천하 만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내(吾)’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② ㉡ :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유혹하여 자아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吾)’를 지킨다는 뜻에 관한 것으로 큰 형님과 대화하며 성찰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다.
- ③ ㉢ :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유혹하여 자아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 : ‘본질적 자아’를 돌보지 못했던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⑤ ㉤ : 큰 형님은 귀양을 가지 않아서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吾)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웅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吾)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吾)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서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吾)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吾)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吾)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 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太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인향고등학교 (인천)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구절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비슷한 사례가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용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에 주변 인물들이 동조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4. 윗글을 읽은 후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항상 동시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해.
- ② 기억에 남는 모든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
- ③ 삶을 성찰할 때는 혼자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중요해.
- ④ 자신의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군.
- ⑤ 어떠한 경우에도 자아는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군.

인향고등학교 (인천)

5. ㉠을 참고하여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에 쓰인 표현법을 쓰시오.
- (2) ㉡의 속뜻이 무엇인지 쓰시오.

1-(2) 산속에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제재	산속, 불빛		
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함. 		

◆전체 구조

1연	2연	3연	4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낌.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가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됨.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 줌.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줌.

1. 대조적 의미의 시어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	'어둠', '밤'
희망, 위안, 위로 등		고난, 슬픔, 시련 등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2. 시어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

'불빛'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	우리가 '불빛'와/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
'어둠'	고난, 슬픔, 시련		
'나그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난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눈군간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 나희덕, '산 속에서'

인항고등학교 (인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문장의 어순을 바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소망의 상실로 인한 막막하고 아득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로 시간변화에 따른 대상의 변화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 : 고난, 슬픔, 시련이 되는 존재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 : 화자가 기다리던 특정한 사람으로 시적 화자가 그동안 애타게 찾던 대상이다.
- ④ ㉣ :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발견한 민가들로 화자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대상이다.
- ⑤ ㉤ :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를 나타낸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3.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먼 곳의 불빛이 지속적으로 나그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송양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명사형의 문장 종결과 어미의 생략으로 시적 여운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불빛'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1)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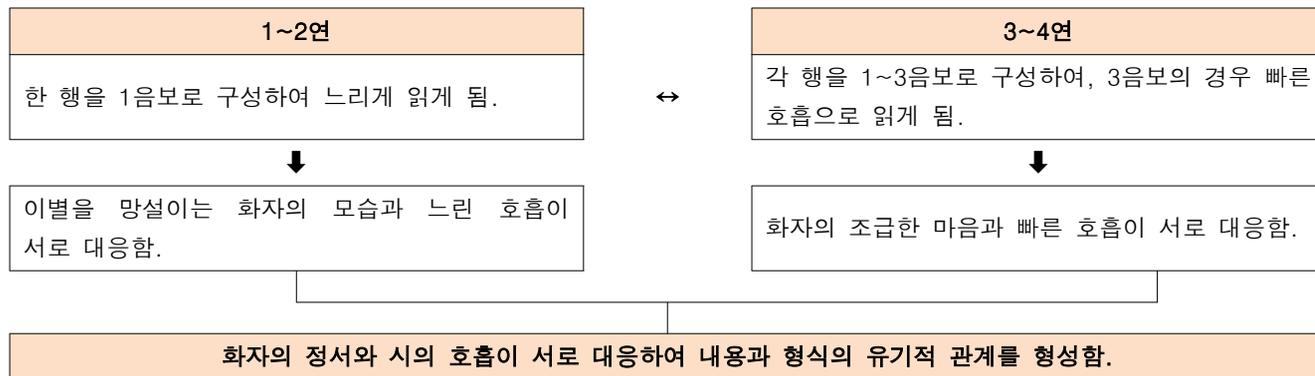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애상적, 서정적
제재	임과의 이별	운율	내재율(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후경(先情後景)의 구조를 취함. •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둠. • 객관적 상관물(‘까마귀’, ‘강물’)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함. 		

◆전체 구성

1연	이별의 안타까움	선정(先情)	이별의 내면적 상황
2연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3연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후경(後景)	이별의 외면적 상황
4연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1. 시행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



2.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까마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함. •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귀며 이별을 재촉함.
'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별의 이미지를 지님.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며 이별을 재촉함.

↓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꿍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인향고등학교 (인천)

1. ㉠ ~ ㉤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행을 나누어 써서 망설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그립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의 망설임이 고조되는 부분으로 미련과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바람과는 달리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 : 이별을 피하는 방법으로 입을 뒤편이라고 재촉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전개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와 반복과 변주로 시적 공간의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내면의 심리를 먼저 제시하고 외적 상황을 나중에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대상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 ⑤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3. 다음은 윗글의 시행 배열이 내용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서술하시오.

	1, 2연	3, 4연
운율	한 행이 주로 1음보	한 행이 주로 3음보
시행의 길이	짧은 시행	긴 시행
호흡의 속도	(1)	(2)
내용 전달에 미치는 효과	(3)	(4)

<조건>

- (1), (2)는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느리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을 것.
- (3), (4)는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을 시, 1점씩 감점함.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를 서술하고, 윗글에 적용하시오.

- (1)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 정의
- (2) 윗글에서 '객관적 상관물' 두 개를 찾아 쓰시오.

<조건>

- (1) 개념과 관련된 속성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문장으로 서술할 것.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1.③ 2.⑤ 3.④ 4.② 5.⑤ 6.① 7.②⑤ 8.① 9.(1) 역설
 법 (2)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10.③ 11.⑤ 12.
 ③ 13.① 14.① 15.③ 16.② 17.③ 18.㉠: 역설 ㉡: 화
 자의 심리(기쁨과 슬픔의 복합)를 극대화하기 위해
 19.③⑤ 20.⑤ 21.① 22.③ 23.② 24.③ 25.① 26.⑤
 27.⑤ 28.③ 29.④ 30.(가)의 화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의
 화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불의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
 지를 다진다. 31.⑤ 32.③ 33.③ 34.⑤ 35.③ 36.②
 37.② 38.④ 39.④ 40.도치법. 원래 문장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맞는데,
 문장을 도치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41.① 42.
 ② 43.② 44.⑤ 45.② 46.② 47.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픔을 동시에 느
 끼고 있다. 48.③ 49.① 50.(1) 삶의 목적, 소망, 보람
 (2) 모란 51.② 52.④ 53.③ 54.① 55.① 56.(1)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2)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57.⑤ 58.① 59.④ 60.(1)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 서서 낸 입김 자국에서 떠오
 르는 죽은 아이의 영상을 '차고 슬픈 것'과 같이 서
 로 상반되는 감정을 병치하는 대위법을 통해 나타내
 고 있다. (2) '유리'는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이다. 죽
 은 아이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황
 홀하지만 죽은 아이의 모습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외로운 심정을 느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61.① 62.⑤ 63.② 64.① 65.(1) 산속에서 밤을 맞
 아 본 사람 (2) 펄렁 66.⑤

1-(2) 수오재기

1.③ 2.④ 3.⑤ 4.④ 5.(1) 반어법 (2) 큰형님이 자신의
 '나(吾)'를 지킨 것을 겸손하게 표현했다. 6.③ 7.① 8.
 ② 9.① 10.① 11.④ 12.② 13.④ 14.⑤ 15.④ 16.③
 17.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
 본질적인 '나'를 지킨 선비입니다. 18.④ 19.④ 20.③
 21.③ 22.② 23.④ 24.㉠, ㉡, ㉢, ㉣ 25.김보화, 노희
 은 26.'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한
 문 문학 양식 중 하나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
 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갈래이다. 오
 늘날의 수필에 해당한다. 27.③ 28.④ 29.② 30.① 31.

② 32.③ 33.④ 34.① 35.① 36.⑤ 37.태현, 몸 38.②
 39.⑤ 40.③

1-(2) 산속에서

1.② 2.③ 3.③ 4.④ 5.① 6.⑤ 7.맞잡을 손, 작은 지붕
 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
 과 힘을 주는 존재이다. 8.③ 9.① 10.② 11.② 12.불
 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다. 13.⑤ 14.④ 15.㉠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갈아가
 는 따뜻한 마음 ㉡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 16.소외된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17.② 18.⑤ 19.③
 20.④ 21.④ 22.③ 23.⑤

2-(1) 가는 길

1.⑤ 2.② 3.(1) 호흡이 느리다. (2) 호흡이 빠르다. (3)
 이별의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4) 이별을 재촉하는 외부 상황을 효과적
 으로 제시한다. 4.(1)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가 자신
 의 정서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져오
 는 바깥 세계의 대상이다. (2) 까마귀, 강물 5.② 6.④
 7.⑤ 8.④ 9.A는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짧으며, 호흡
 의 속도가 느려서 그리움과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B는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
 며, 호흡의 속도가 빨라서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10.② 11.④ 12.(1) '말을 할까 / 하니 그리
 워'에는 행간 걸침을 통해 화자의 망설임을 효과적으
 로 드러낸다. (2) 역설법.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13.④ 14.④ 15.⑤ 16.② 17.⑤ 18.㉠ 타인 ㉡ 이기적
 인 ㉢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 ㉣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19.② 20.② 21.
 ⑤ 22.① 23.⑤ 24.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시적 화
 자의 안타까움과 망설임을 부각한다. 25.(가)의 '까마
 귀'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보기2>의
 '까마귀'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이입의 대상
 이다. 26.③ 27.[A]는 낭독의 속도를 늦추어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
 며, [B]는 낭독의 속도를 높여서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
 다. 28.④ 29.① 30.② 31.② 32.④ 33.⑤ 34.③ 35.②
 36.① 37.⑤ 38.④